

# 年中行事와 儀式으로 본 근세 왜관

윤유숙\*

aoiiruka@hanmail.net

## Contents

- I. 머리말
- II. 왜관의 年中行事
- III. 왜관의 특별한 儀式들
- IV. 맺음말

##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lucidate the routine activities in everyday lives of the Japanese in Waegwan by examining their annual activities and various rituals.

The annual activities are approached in twofold ways. Firstly, it is noteworthy that annual activities occasioned the exchange of gifts between Joseon residents and the Japanese. Those from Tsusima who came over to Waegwan as part of diplomatic delegation or as government officials exchanged gifts with Joseon officials who entertained them, in celebration of annual holidays. The giving and taking of gifts is not mentioned in the official trade regulations, but we may suppose that it was naturally established as customary practice. This also signifies that there existed traffic in products between Joseon and Japan apart from authorized trade or diplomatic ceremonies. Secondly, in view of Gozekku(五節句), which was a major holiday in the Edo period, July was the busiest time in Waegwan when there took place the most annual activities. In Waegwan they usually performed Segaki(施餓鬼) at the Tong Hyang Temple to honor the ancestors. The cemeteries in the Tumopo Waegwan were annually visited as well.

As for the rituals performed in Waegwan, I examine four different kinds in this study. One of them is the ceremonial recital of Gabegaki, which is the set of rules that were to be observed by those living in Waegwan. This recital was performed by the head of Waegwan in front of the Waegwan inhabitants. At the end of the seventeenth century, only Gabegaki was recited. But by the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일본사전공.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21-A00014).

mid-eighteenth century, the recited documents were three in total: Gabegaki, the paper sent from Chosengosihai(朝鮮御支配), and the paper about Kokan(交奸). The second ritual is the exchange of blessings which took place among all the Waegwan inhabitants on the first day of each month. This served, it seems, the purpose of roll call and also helped make sure of everyone's well being. The third includes the ceremonial rituals that had to do with occasions to celebrate or mourn concerning the Daimyo(大名) or the families of Daimyo. On the death of Daimyo, in particular, the Waegwan inhabitants were required to remain chaste and watch their behavior; also Joseon translators came in to pay condolences. The fourth concerns punishment and execution: the Tsusima clan(對馬藩) would officially execute, at a site near Waegwan, the Tsusima residents who were caught for smuggling or other illegal deeds.

**Key Words** : 對馬藩、年中行事、儀式、五節句、倭館、東向寺

(the Tsusima clan, annual activities, rituals, Gozekku, Waegwan, Tokouzi)

## I. 머리말

조선후기 조선 내의 일본인 집단거주지에 상당하는 곳을 꼽는다면 현재 부산 지역에 설치되었던 '왜관'(두모포왜관, 초량왜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인의 조선 内地 왕래나 三浦(부산포, 염포, 제포)지역에서의 거주가 허용되었던 조선전기와는 달리 일본인의 입항지가 부산 왜관 한곳으로 한정된 조선후기에는 왜관 주변지역에서의 거주 자체가 금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왜관을 중심으로 한 일정지역을 벗어나 여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배회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왜관은 본래 조선전기부터 조선에 도항해온 일본인을 수용하고 접대하기 위하여 조선정부가 객관(客館)으로 설치한 것이지 일본인의 정주를 위한 시설은 아니었다. 조선후기가 되어서도 왜관의 본질적인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왜관 체재자에 대한 관리와 통제라는 측면에서는 조선정부의 정책이 전기에 비해 강화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對조선 무역과 외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너온 일본인(대마도인)들이 일정기간 체재하는 유일한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형

대상 조선내의 ‘일본인 집단거주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후기 왜관에 건너오는 일본인의 체재기간은 각 개인의 도항목적, 임무에 따라 짧게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등 다양했으며 전체 체류인원은 평균 400~500명 정도였다. 그들은 衣食住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본식 생활을 영위하면서 請負商人 등을 통해 본국으로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여 사용했다. 예를 들어 야채, 생선과 같은 식재료는 매일 아침 왜관의 守門 앞에서 열리는 朝市를 통해 인근 마을에서 모여든 조선인들로부터 구입하여 해결했다.

또한 조선과의 공식적인 외교, 무역업무 이외에 일상생활은 일본식으로 영위되었으므로 왜관 내에서는 館守의 지휘 하에 당시 일본사회 또는 대마번이라는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던 각종 행사나 의식(儀式)이 재연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그간 선학의 연구를 통해 왜관 체재자의 식생활이나 조선의 식문화와의 교류실태 등 왜관 체재자의 생활양태가 일부 밝혀졌다.<sup>1)</sup> 그러나 왜관에서 열리던 각종 행사, 의식에 관해서는 ‘일본에서와 거의 다를 바 없이 歲時行事가 행해졌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구체적인 실태 연구는 아직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왜관에서는 어떠한 연중행사와 의식이 행하여졌는가 하는 점을 왜관 체재자들의 일상적인 생활상이라는 시각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검토하는 행사와 의식이란 매년 반복되는 연중행사(세시행사)를 비롯하여 喪事와 같은 慶弔事, 처형의식 등을 포함한다. 연례송사(年例送使)와 차왜(差倭) 같은 사절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외교의례, 이를테면 각종 宴享 중에서도 세시행사와 무관한 의식은 금번 검토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본고는 왜관의 연

1) 조선후기 조선내의 일본인 집주지에 상응하는 왜관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의 연구 성과가 확인된다. 조선정부의 두모포왜관·소량왜관에 관한 전반적인 통제정책, 대마번의 왜관 통제정책을 비롯하여 규약위반시의 법적인 처리, 문화·생활양태적인 측면의 교류, 왜관의 존재가 왜관주변의 조선 지역사회에 끼친 문화적인 영향, 왜관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등을 다룬 연구가 있다. 특히 왜관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 생활양태적인 측면의 교류에 관해 다룬 대표적인 논고로는 田代和生(2002) 『倭館—鎖国時代の日本人町—』文芸春秋, 田代和生(1996) 「近世倭館の食生活」 『季刊ヴェスタ』 26, 金声振(1998) 「釜山倭館과 韓日間文化交流」 『한국문화논총』 22輯, 한국문화회, 金東哲(2001) 「十七~十九世紀의 釜山倭館周辺地域民의 生活相」 『年報都市史研究 9 東アジアの伝統都市』 山川出版社 등이 있다. 그 외에 왜관에 체재하는 일본 측 사신에 대한 조선의 음식 접대양상을 다룬 논고로 沈珉廷(2008) 「18세기 倭館에서의 倭使 접대음식 준비와 양상」 『역사와 경계』 66이 있다.

중행사, 각종 의식, 祭禮 등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왜관 일본인들의 실질적, 구체적인 생활상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 II. 왜관의 年中行事

### 2.1. 私的 증답품의 교환

조선후기 조일통교에서는 對馬藩이 파견한 외교사절인 연례송사와 차왜, 그리고 관수(館守)·재판(裁判)과 같은 役員이 왜관에 체재하는 동안 소정의 외교의례를 치르도록 되어 있었다. 大差倭는 예조참판·예조참의·동래부사·부산첨사, 小差倭는 예조참의·동래부사·부산첨사 앞으로 보내는 書契와 別幅(예단목록)을 지참하고 도해하였고, 연례송사 역시 送使 별로 별폭의 내용은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다. 조선은 이에 대해 答書와 回賜品(답례예단)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양측이 사절별로 정해진 종류와 수량의 예단물품을 교환하는 것이 이른바 공식적인 외교의례의 절차였다.

그런데 사절의 명목으로 혹은 역원의 임무를 띠고 왜관에 도해한 대마번 사람들과 그들을 접대하는 조선의 관리들 사이에는 규정상의 예단교환 외에 사적(私的)으로 선물을 교환하는 예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1629년 宣慰使(후의 接慰官)로 동래에 내려온 정홍명(鄭弘溟)의 『음빙행기(飲氷行記)』에 의하면 그는 한 달 정도 머무는 동안 공식예단 외에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 사절단의 일원과 수차례나 사적인 선물을 교환했다. 4월15일에 正官 겐포(玄方)로부터 굴·유자·설탕 2그릇, 副官 스키무라 우네메(杉村采女)로부터 南都釀 1동이·말린 저육 2脚을 받았고, 閏 4월21일에는 겐포로부터 佛書 10권·거울 1개, 副官 스키무라로부터 偃月長刀 1자루를 받았다. 정홍명은 4월16일에 겐포에게 붓·먹·부용향·감·밤 약간과 스키무라에게 닭·생선·감·밤 등을 보냈다.<sup>2)</sup> 상호 간에 사적인 선물교환이 매우 일찍부터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양홍숙(2009) 『조선후기 東萊지역과 지역민 동향-倭館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62.

또한 관수·재판·차왜 등은 새해 정초와 명절이 되면 동래부사, 부산첨사, 훈도·별차 등과 정식으로 축하 인사를 나누고 증답품을 주고받는 것이 상례였다. 1693년(元祿6) 말에 관수로 부임한 幾度六右衛門은 동래훈도, 부산별차, 그리고 朴同知, 韓僉知에게 각각 1인당 5~6종류의 물품을 이른바 ‘부임 기념선물(着船の音物)’로 증여했다. 그 목록을 보면 품목은 벼루(花繪中硯), 거울(鏡), 그릇(染附中皿), 종이(紋紙), 조개(靑貝:나전[螺鈿]의 재료로 쓰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sup>3)</sup>

宗家記錄의 차왜 관련 문헌 중의 하나인 『給假使記錄』에 의하면 1834년 동래부사가 왜관에 체재 중이던 급가사(給假使)<sup>4)</sup> 일행에게 중앙절(重陽節:음력9월9일) 선물을 보냈고, 연말이 되자 역관들(兩譯)이 세모(歲暮) 선물을 보냈다.<sup>5)</sup> 그리고 『給假使記錄』의 가장 뒷부분에는 급가사가 왜관에 체재하는 동안 동래부사·부산첨사·역관들에게 보낸 선물(贈物) 목록들이 첨부되어 있다.

재관을 역임한 바 있는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도 1729~1730년의 기간 동안 접위관, 동래부사, 훈도, 별차 등과 선물을 교환했다. 조선 측 관리가 中元(음력 7월 보름)과 세모에 왜관으로 보낸 선물은 쌀을 비롯해서 떡, 야채, 어패류, 건육(乾肉), 주류(酒類), 기름, 살아있는 닭과 꿩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채로웠다.<sup>6)</sup>

특징적인 점은 일본 측이 선물하는 물품은 주로 사치품이나 생활용품인데 비해 조선 측의 선물은 대부분이 식재료였다는 점이다. 식재료를 선물한 것은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탓에 다양한 재료를 입수하는 데 불편함을 겪기 쉬운 재판자의 상황을 고려해서가 아니었을까. 재판자들은 매일 아침 守門 앞에서 열리는 朝市를 통해 인근 촌락에 거주하는 조선의 주민들로부터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또는 식료품을 취급하는 대마번의 請負商人<sup>7)</sup>으로부터 식재료를 구입하

3) 『館守每日記』 元祿 6년(1693) 12월18일조. 전 품목의 금액은 銀540目으로 기록되어 있다.

4) 給假使는 1833년 대마번주 소오 요시가타(宗義質:1801-1838)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소오 요시아야(宗義章:1817-1842)가 에도에서 생활하다 대마도로 처음 귀향한 사실을 조선에 알리기 위해 도해한 차왜이다. 급가사의 도해배경 및 조선과의 외교교섭에 관해서는 윤유숙(2010) 「근세 朝日통교와 非定例 差倭의 조선도해」 『사총』 70, pp.138-141 참조.

5) 宗家記錄 『給假使記錄』 1834년 10월4일조·1834년 12월26일조(국사편찬위원회소장, 기록류 No.3947).

6) 앞의 책, 『倭館-鎖國時代の日本人町』, pp.175-176.

곤 했다.<sup>8)</sup> 따라서 특별한 명절이나 연말연시를 맞아 조선의 관리로부터 받는 이러한 식재료들은 왜관 내에서 생활하는 在館者들의 세시명절 식단을 한층 풍요롭게 하는 데 일조했으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상호간 선물 수수행위는 사실상 조선의 통교정식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양국의 통교가 진전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관례로 정착되었을 것이다. 또한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이것은 공식적인 무역행위나 공식적인 외교의례와는 별개의 형태로 조일양국의 생산품이 교환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즉 이러한 선물 수수행위는 결과적으로 조선의 물품이 대마도에 전해지고 반대로 일본산 생활필수품이 조선 내에서 사용되거나 유통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로 19세기 초 김해를 비롯한 왜관 인근 지역에서는 勝歌妓(스키야키), 대마도 밀감, 일본 국수를 먹는 문화가 실생활에 도입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日本刀, 美濃紙(미노가미: 일본산 종이), 자기(瓷器), 모기장, 접시, 술병 등의 일본제품이 심심치 않게 사용되었고, 김해의 5일장에서는 자기로 만든 일본제 벼루와 거울 등이 매매되고 있었다는 사실<sup>9)</sup>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2. 주된 연중행사

전통 일본사회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 년을 통해 이른바 ‘歲時行事’라고 불리는 연중행사가 행해졌다. 연중행사란 우리의 세시풍속을 뜻하는데 이는 과

7) 請負屋이라고도 한다. 請負屋이란 특정 품목을 藩과 계약하고 운반하거나 때로는 왜관에서 제조 기술을 제공하는 일종의 청부업자를 말한다. 대개 번의 허가가 떨어지면 그들은 請負札이라는 것을 도항증으로 지급받았다. 이 請負札의 종류와 발행수를 보면 왜관에서 부족했던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8) 관수나 재판처럼 신분이 높은 관리들은 전속 요리사가 식사를 만들어 주었다. 대마번의 요리사는 ‘유미노모노(弓の者)’와 동격(同格) 즉 아시가루(足輕) 신분이다. 때로는 교토나 오사카 지역에서 고용되거나 요리수행을 위해 대마도인을 가미가타(上方)에 보내기도 했다. 그들은 이른바 정식 일본요리(本膳料理)를 해낼 수 있는 프로들이었다. 그 외 중간급 관리들은 관(館) 별로, 또는 직책별로 고용한 자를 통해 요리, 청소, 세탁 등을 해결했지만 하급무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공업자들은 스스로 해결했다고 한다. 앞의 책 『倭館—鎖國時代の日本人町—』, p.152. p.177.

9) 김성진(1998) 『朝鮮後期 金海의 生活相에 미친 日本文物』 『인문논총』 52,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pp.305-306.

거 일본의 제도권에서 통용되던 용어으로써 조정 및 일부 귀족층을 중심으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민간에 보급되었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

일본의 세시일은 독자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중국의 습속을 도입하였다. 기후조건, 종교문화의 전통, 시간인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세시일의 비중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나라만의 독자적인 세시일이 생성되기도 하지만 한국, 중국, 일본은 태음력 및 거기에 기초한 사상적 배경(음양론)을 공유하고 있던 까닭에 세시일은 거의 동일하게 전개되었다. 더구나 일본의 연중행사는 역(曆)을 토대로 1년 주기의 반복성을 가진다는 점, 농경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점, 의례를 포함한 각종 주술행위가 수반된다는 점, 특별한 음식(세시음식)을 마련한다는 점 등에서 한국의 그것과 크게 상이하지 않다.<sup>10)</sup>

일본의 연중행사에 관한 한국학계의 연구는 주로 민속학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대마도의 연중행사에 관한 연구는 한국문화와의 授受관계를 검증하려는 의도 하에 비교민속학적인 시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sup>11)</sup> 그런데 이러한 성과들은 대부분 최근 수십 년간 행해진 대마도의 연중행사를 조사 대상으로 한 결과물이어서 에도시대 연중행사와의 상이점 내지는 계속성을 추출해내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왜관과 관련된 宗家記錄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과연 에도시대 일본사회에서 중시되던 연중행사가 왜관에서는 어떻게 영위되었는지를 추적하여 이를 가능한 상세하게 재현할 것이다.

역대 관수의 업무일지에 해당하는 『館守每日記』를 살펴보면, 정월 초 부분에서 거의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年始(넌시)’에 관한 기술이다. 일본에서 ‘年始’(年賀, 年禮)란 본래 본가(本家)나 신세를 진 집안에 예의를 갖추어 정초 인사 하러가는 것을 말한다. 年始는 한국의 신년 ‘세배’에 해당하는 셈이다.

10) 김미영(2008) 「일본 세시풍속 연구의 동향과 전망」, 『비교민속학』 37집, pp.48-49. 일본은 古代 헤이안 시대에 1년 단위의 국가행사를 기록한 후 ‘연중행사어장자문(年中行事御障子文)’이라는 제목을 붙여 공개했는데, 이를 효시로 간주하고 있다.

11) 대마도의 연중행사에 관해서는 対馬觀光物産協會(2002) 『つしま百科』 昭和堂. 対馬教育會編(1973) 『増訂対馬島誌』 名著出版. 임동권(1985) 『日本対馬・壱岐島 綜合學術調査報告書』 서울신문사. 강남주(1996) 「한국 남해 도서와 일본 대마도의 민속문화와 문학에 관한 연구」 『비교민속학』 p.13 참조.

그런데 에도시대 年始는 公家の 귀족과 武家, 에도의 상인계급에 따라 각기 그 취지가 달랐다. 殿中儀禮로서의 年始는 쇼군에 대한 배알행위로 편성되어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어서, 쇼군이 다이묘(大名), 하타모토(旗本), 寺社, 초닌(町人), 藝能人 등으로부터 年賀의 축하를 받는 형태를 취하였다. 즉 도쿠가와 가문을 쇼군으로 섬기는 무가사회에서는 1일, 2일, 3일에 다이묘, 신분상 쇼군 알현을 허가받은 관리들, 番士<sup>12)</sup>, 醫師, 交代寄合<sup>13)</sup>, 表高家寄合,<sup>14)</sup> 5百石 이상의 小普請들이 새해 축하 인사를 올리기 위해 에도성(江戸城)에 등성했다. 하지만 초닌 특히 商家의 경우는 달랐다. 12월 末日(오오미소카, 大晦日)에는 밤을 새우지만 ‘寢正月(네쇼가츠)’라고 하여 아무데도 가지 않고 자면서 지내고, 2일부터를 신년으로 始動하는 것이 보통이었다.<sup>15)</sup>

한편 왜관에서도 매년 정월 초에는 ‘年始’라고 하여 한해의 시작을 축하하는 의례를 행하였다. 『館守毎日記』에서는 ‘年始 축하(祝詞)를 하기 위해 재판자(在館者)가 빠짐없이 나왔다’, 또는 ‘元日(1일)을 축하하기 위해 재판자가 모두 나왔다’는 기록을 거의 매년 찾아볼 수 있다. 재판자 전원이 각자의 숙소에서 나와 관수에게 새해인사를 하고 제각기 서로 새해인사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개 2일이나 3일 무렵이 되면 훈도와 별차 등 조선의 역관이 왜관에 들어와 관수와 새해인사를 나누고 돌아가곤 했다. 본래 年始는 1일을 제외하고 2일부터 7일까지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하나 왜관에서는 1일에 年始가 행해졌다는 기록이 적지 않다.

12) 番方は 막부의 역직 중에서도 쇼군의 경위나 에도성의 경비 등 武事に 관한 것을 총칭한다. 협의로는 쇼군 직속의 상비군이자 旗本役의 五番方(大番, 書院番, 小姓組, 新番, 小十人組)를 가리키지만 御家人役의 百人組, 徒組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五番方は 제각기 番頭, 組頭, 番士로 구성되었다. 竹内誠編(2003) 『徳川幕府事典』 東京堂出版, p.61.

13) 하타모토(旗本)나 고케닌(御家人) 중에서 3千石 이상의 가록(家禄)을 받으면서 막부의 역직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자(無役)는 요리아이(寄合), 3千石 이하는 고부신(小普請)으로 분류되었다. 고타이요리아이(交代寄合)는 無役의 大身(3千石 이상) 하타모토로 다이묘에 준하여 그知行所에 거주하면서 참근교대(参勤交代)의 의무를 졌다. 앞의 책 『徳川幕府事典』, p.57.

14) 고케(高家)는 에도막부의 의식, 典禮, 朝廷에의 사절, 이세신궁(伊勢神宮), 닛코도쇼구(日光東照宮)에의 代参, 勅使 접대, 조정과의 사이에 諸禮를 담당했던 가문이다. 무로마치 이래의 名家인 大沢, 武田, 畠山, 大友, 吉良 등 26개 가문이 세습했다. 오쿠코오케(奥高家)라고도 하며 관위가 없는 고케를 오모테코오케(表高家)라 했다.

15) 小野武雄(2002) 『江戸の歳事風俗誌』 株式会社講談社, pp.12-14.



또한 정초가 되면 ‘年始의 御祝儀(고슈기)’라고 해서 대마번청이 왜관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게 새해를 축하하는 뜻으로 금품을 하사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대마번청은 1757년 왜관에 있던 차왜 報情使의 正官 다다 켄모츠(多田監物)에게 御直書(번주의 親書로 추정됨)와 樽代(다루다이, 축하주 대신 보내는 돈) 金2束을 하사했다.<sup>16)</sup>

그러면 한해를 年始로 시작한 왜관에서는 일 년을 통해 어떤 연중행사가 행해졌을까. 에도시대에 일반적으로 중시되던 세시는 오절구(五節句)였다. 오절구란 3월3일(上巳, 桃の節句), 5월5일(端午), 5월7일(人日, 若菜の節會), 7월7일(七夕), 9월9일(重陽)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 날들이 祝日로 취급된 것은 중세 에도 확인이 되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오절구라고 칭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계절감을 느낄 수 있고 동일한 숫자가 연속하는 등 친숙한 축일이라는 점 때문에 에도시대에 정착된 것으로 추정된다.<sup>17)</sup>

본래 오절구와 같은 축일에는 다이묘, 하타모토가 에도성에 등성하여 쇼군을 배알하는 것이 의무였고, 각 藩內에서도 家臣들이 다이묘에게 축하의 인사를 올리는 의식이 행해졌다.<sup>18)</sup> 그러나 조선에 위치한 왜관에서는 그러한 의식이 불가능했으므로 재관자들이 서로 節季 인사를 나누는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주로 5월 단오(端午)와 9월 중양(重陽)에 관수·재판·차왜 등이 통교업무 상 상대해야 하는 조선 측 관리와 명절 축하선물을 교환하는 정도였다. 7월을 제외하고 오절구의 축일에 왜관에서 특별한 행사나 회합 등을 가졌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오절구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왜관에서 연중행사가 가장 풍부하게 행해진 것은 7월이었다. 7월은 七夕祭(다나바타마츠리)를 비롯하여 연중행사가 풍부한 달에 속한다. 7월은 文月(후미즈키, 후즈키), 涼月(료게츠), 七夕月(다나바

16) 宗家記録『報情參判使往復書狀』宝曆7年(1757) 정월2일자 書狀(국사편찬위원회소장, 기록류 No.3072).

17) 앞의 책, 『徳川幕府事典』, p.85.

18) 오절구 등 쇼군 배알은 기본적으로 쇼군의 無事を 축하하는 장이자 쇼군이 節季의 축하를 받는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君臣이 서로 상대방을 축하하는 것은 아니었다. 節季의 축하를 행하는 장은 상위자가 하위자의 축하를 받는 형식을 취하여 중층적으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藩內에서도 다이묘가 가신들로부터 축하를 받았으며 規式的 장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준비되었다. 앞의 책, 『徳川幕府事典』, p.85.

타즈키), 蘭月(란게츠), 親月(오야즈키), 初秋月(하츠아키즈키)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7월의 대표적인 행사는 七夕祭(다나바타마츠리)와 お盆(오분)이다. 일본에서는 七夕을 ‘다나바타’라고 하는데 어원적으로 보면 ‘다나’는 제단을 의미하는 ‘棚’이고, ‘바타’는 베짜는 기계인 ‘하타’가 연탁(連濁)이 되어 이루어진 말이다.

일본의 칠석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걸교전(乞巧奠)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금은제의 바늘을 바치고 詩와 소원을 적은 것을 대나무에 매어놓고 여성은 봉제솜씨가 좋아지기를, 남성은 文才가 늘기를 기원했던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농업노동과 관련하여 풍작기원과 노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 풍작을 기원하기 위하여 농신(農神)과 수신(水神)인 七夕神에게 팔밥을 바치고 병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애쓴 것이 전자이고 칠석기간이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추수기의 노동력을 감안하여 휴식을 취한 것이 후자이다. 셋째, 조상숭배와의 관련성이다. 이 날을 ‘나누카본(七日盆)’ 또는 ‘초본(盆はじめ)’이라고 해서 조상의 영령이 찾아오는 오분(お盆) 준비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그래서 불구(佛具)를 씻고 불단(佛壇)을 청소하고 본다나(盆棚)에 장식할 꽃을 따오기도 하고 묘지를 청소하기도 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일본의 칠석은 오분으로 이어지는 행사 중의 하나일 가능성도 크다.<sup>19)</sup>

칠석의 행사인 七夕祭는 공무(公武) 연중행사의 하나로, 왕조시대에는 상당히 정성을 들여서 행사를 거행했으나 에도시대에는 오절구의 하나로 상하 일반인이 이를 축하했다. 막부에서는 6일에 고산케(御三家)를 비롯하여 다이묘들이 使者를 보내 칠석을 축하하는 선물로 鯖代(사바다이)를 헌상했다. 7일 당일에는 殿中(쇼군이 있는 곳)에 출사(出仕)하는 사람들이 예복차림으로 축하인사를 했다.

에도시대의 서민들은 7월7일 밤 견우와 직녀 두 별이 아마노가와(天の川)를 건너 1년에 한번 만나는 것을 축복하여 여자가 작은 대나무에 五色의 단자쿠(短冊)<sup>20)</sup>을 묶어 꾸지나무(梶) 앞에 詩歌를 적고 소원의 실을 걸어 하늘 높이 띄웠다. 이것은 文書와 재봉(裁縫)이 능숙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19) 강진문(2003) 「일본의 세시풍속-연중행사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2, pp.234-235.

20) 와카(和歌)를 적는 데 사용하는 料紙.

소원의 실은 사랑을 이루려는 주문이기도 했다.<sup>21)</sup>

왜관의 경우 7월 당일에 특별한 행사를 치루었다는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재관자가 모여 서로 칠석의 축사(祝詞)를 나누었다’고 되어 있다.<sup>22)</sup> 왜관의 7월 연중행사로 빼놓지 않고 행해진 것은 盂蘭盆會(우라본에, 우란본)이다. 盂蘭盆은 음력 7월15일로, 이 날은 백중(百中 또는 百衆)·백중(百種)·망혼일(亡魂日)·중원(中元)이라고도 한다. 이 무렵에 갖가지 과일과 채소가 많아 100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놓았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또한 돌아가신 조상의 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음식·과일·술을 차려놓고 천신(薦新: 햇곡식, 해산물을 조상신에게 먼저 올리는 의례)을 하였으므로 ‘망혼일’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백중은 예로부터 성대하게 치러지던 명절이었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풍습이 많이 소멸된 반면 아직도 중국과 일본에서는 비교적 백중을 성대하게 지내는 관습이 있다.

盂蘭盆會는 음력 7월15일 백중날 불교사원에서 『佛說盂蘭盆會經』에 의거하여 거행하던 법회이다. 盂蘭盆은 범어(梵語) ‘우라무마나’로, 도현(倒懸)<sup>23)</sup>이라고 번역하며 그 유래는 불교와 관련이 깊다. 석가모니의 제자 目連이 法眼으로 자신의 亡母가 지옥의 아귀도(餓鬼道)에서 거꾸로 매달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여 이를 구하고 싶다고 석가에게 청하였다.<sup>24)</sup> 그 가르침에 의해 아귀에게 베푸는 마음으로 7월15일 각종 진미 음식을 준비하여 衆僧에게 공양함으로써 어머니의 도현(倒懸)을 풀고자 했다는 유래를 지닌다. 『佛說盂蘭盆會經』에 의하면 4월15일부터 夏安居(계안고)<sup>25)</sup>를 계속한 自恣僧(지시소)에게 百味の 공양을 하면 아귀도에 있는 양친이나 조부모가 겪는 기갈의 고통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21) 앞의 책 『江戸の歳事風俗誌』, pp.146-150.

22) 『館守毎日記』 元祿8년 7월7일조.

23) 손발을 묶어서 거꾸로 매다는 것. ‘엄청난 고통’을 비유한다.

24) 법안(法眼)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五眼 중의 하나이다. 五眼이란 인간의 肉眼, 天人의 天眼, 聲聞·緣覺의 慧眼, 보살의 法眼, 부처의 仏眼을 말한다. 보살은 法眼으로 諸法の 진상(真相)을 알아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다. 또한 불교에서는 惡業으로 인해 아귀도(餓鬼道)에 떨어진 亡者를 아귀(餓鬼)라 한다. 몸은 마르고 목구멍이 가늘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어 항상 기갈(飢渴)로 고통스러워한다.

25) 승려가 일정기간 외출하지 않고 일실에 틀어박혀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음력 4월16일에 시작해서 7월15일에 끝난다. 禪宗에서는 겨울에도 안거를 한다(冬安居).

일본에서는 7세기 중엽 사이메이(齊明)천황 재위시기 슈미센(須彌山)을 아스카데라(飛鳥寺)<sup>26)</sup>의 서쪽에 만들고 盂蘭盆會를 열었다고 전해진다. 쇼무(聖武)천황 재위기인 733년 7월6일 처음으로 大膳(다이젠 : 율령제하에서 궁중의 會食요리 등을 담당한 관청)으로 하여금 우란본의 공양을 준비하게 한 이후 항례적인 궁중행사가 된 듯하다. 가마쿠라 시대에 들어서면서 新佛敎가 말법(末法)을 극복하자 盂蘭盆會 행사도 폐지되었지만 自恣僧에게 백미 공양을 하는 관습은 남았다. 가마쿠라 시대 말에는 이것도 없어지고 집에서 조상에게 음식을 바치는 날이 되었다. 盂蘭盆會가 조상에게 제사하는 날이 된 것이다. 불교사원에서의 盂蘭盆會가 없어지자 서민들은 음식을 사원으로 운반하던 14일을 盂蘭盆會의 날로 의식하고 기억하게 되었다고 한다.<sup>27)</sup>

에도시대에는 13일부터 16일까지를 盂蘭盆이라고 하여, 우선 12일에 盂蘭盆에 바치는 물품 일습을 판매하는 시장인 草市(구사이치, 盆市)가 서고 精靈祭(쇼료마즈리)에 사용하는 精靈棚(쇼료다나)와 장식물을 판매했다. 精靈棚(쇼료다나)는 조상의 정령을 맞아들이기 위해 설치하는 제단으로써 魂棚(다마다나)라고도 한다. 13일에는 귀천에 상관없이 精靈棚을 만들었다. 제단에는 거적(眞菰 : 마코모)을 깔고 정면 좌우에 대나무를 세워 기둥을 만들었으며 위에는 끈으로 소면(素麵)을 물결무늬로 장식하여 승려가 독경하는 가운데 조상의 영혼을 위로했다. 精靈祭가 진행되는 사이 사람들은 조상의 묘에 성묘했다.<sup>28)</sup>

왜관에서는 대개 7월 초순에 세가키(施餓鬼)가 행해지곤 했다. 1694년(元祿7)의 경우 세가키는 7월3일에 행해졌다.<sup>29)</sup> 세가키란 기아에 고통 받아서 재앙을 일으키는 鬼衆이나 무연망자(無緣亡者) 즉 죽음을 애도하여 줄 사람이 없는 亡者의 영혼에 음식을 베풀어 명복을 빌고, 그 공덕으로 조상의 追善을 하는 법회를 말한다. 음력 7월13일에서 15일을 중심으로 행해지며 지방에 따라서는 양

26) 슈미센(須彌山)이란 불교의 世界說에서 세계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高山, 海中에 있으며 정상(初利天)에 帝釈天이 살고 중턱에 四天王이 산다. 須彌山은 九山八海에 둘러싸여 日月星辰이 산 주위를 회전한다. 나라현(奈良県) 明日香村에 위치하는 아스카데라(飛鳥寺)는 596년 소가노우마코(蘇我馬子)가 창건한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사원이다. 호코지(法興寺)라고도 하며 현재는 旧地에 飛鳥大仏을 본존으로 하는 진언종 安居院(안고인)이 있다.

27) 福田アジオ外編(1999) 『日本民俗大辞典』吉川弘文館.

28) 앞의 책, 『江戸の歳事風俗誌』, pp.151-160.

29) 『館守毎日記』 元祿7년(1694) 7월3일조.

력 7월, 8월 등에 행하기도 한다.

1695년(元祿8) 7월 『館守每日記』에 의하면 ‘최근 和館 御寺가 勘略하여 御施餓鬼料가 줄어들어 주지승이 자기비용으로 매년 御施餓鬼를 지냈으나 元祿8년에는 靈光院의 서거 후 첫 御施餓鬼이기 때문에 裁判 高勢八右衛門과 一代官 樋口太郎兵衛 등이 상담하여 御施餓鬼料 白米2俵를 東向寺에 보냈다’<sup>30)</sup>는 구절이 보인다.

왜관의 동향사에서 지내는 세가키 법회 비용을 주지승이 엄출해 왔으나 1695년의 세가키는 靈光院 즉 번주 소오 요시즈구(宗義倫)가 1694년 9월 서거한 후 처음으로 맞는 세가키이므로, 법회가 초라해지지 않도록 관수와 재판이 一代官과 상의하여 동향사에 행사 비용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튿날 7월4일 동향사에서 법회가 거행되었다.<sup>31)</sup>

세가키는 1757년 7월 5일에도 실시되었다. 당시의 관수 多田主計는 香奠(香典, 使者의 영전에 香 대신 바치는 금전)으로 銀1匁과 菓子를 헌납하였고 그 외의 참석자들도 제각기 향전을 헌납하였다. 동향사에서는 오전 7시 무렵부터 독경이 시작되어 약 1시간 정도 진행하고, 배례가 끝난 후 주지승이 참석자들에게 간단한 음식을 제공했다. 이 때 왜관 내에 水棚(미즈다나, 餓鬼棚[가키다나])가 설치되기도 했다. 미즈다나라는 盂蘭盆에 無緣佛(무엔보토크 : 조문해 줄 연고자가 없는 亡者)을 위해 만드는 제단을 말한다. 조상을 제사하기 위한 精靈棚과 별도로 만든다. 이는 자손이 없는 사람은 아귀도에 거꾸로 매달려 옥을 당한다는 고대 인도의 사고방식에서 유래된 관습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7월의 왜관 행사로 주요한 것에 古館 묘소참배가 있다. 1678년 두모포왜관에서 초량왜관으로 이전한 후 왜관에서는 두모포왜관을 ‘古館’, 초량왜관을 ‘新館’이라 부르기도 했다. 두모포왜관에는 왜관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묘소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초량왜관으로 이전한 후에도 묘소는 두모포왜관에 그대로 잔존해 있었다. 그들의 후손이나 관련자가 참배하기를 원하면 봄, 가을의 彼岸(춘분, 추분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7일간)과 盂蘭盆에 관수에게 미리 요청을 하고 두모포로 가서 묘소에 참배할 수 있었다.

30) 『館守每日記』 元祿8년 (1695) 7월3일조.

31) 『館守每日記』 元祿8년 (1695) 7월4일조.

彼岸과 盂蘭盆에 두모포 舊倭館地에 참배하러 가는 것은 조선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한 것이기도 했다. 단 조선정부는 묘소참배를 위해 일본인들이 초량왜관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두모포까지 이동할 시에 조선과 대마번 측의 관리가 동행하도록 조치했다.<sup>32)</sup> 이것은 물론 일본인들이 이동하는 도중 조선의 민가에 난입한다거나 대오를 이탈하여 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사례에 의하면 대개 두모포 묘소참배는 매년 7월13일에서 16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묘소참배를 희망하는 사람은 관내에서 札(통행증명서)을 발급받아 요코메(横目), 구미요코메(組横目)의 동행 하에 古館으로 이동했다. 1695년에도 7월13일에서 16일까지 古館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는 연례적인 것이었는데 관수는 13일 이전에 미리 古館 방문에 관해 관내에 공지를 했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sup>33)</sup> 이해에는 13일 당일이 되자 동래부사와 부산첨사가 ‘盂蘭盆의 祝詞’라는 명목으로 관수에게 선물을 보냈다.<sup>34)</sup> 그리고 이튿날인 14일에는 재관자 전원이 ‘盂蘭盆의 祝詞’를 나누었고 훈도와 별차도 선물을 보내왔다.<sup>35)</sup>

이처럼 일본은 과거에 장례식뿐만 아니라 세시 연중행사가 불교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왜관 내에서 그러한 의식, 행사와 관련된 동향사의 역할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향사에서는 역대 번주 내지는 번주의 부인, 가족들의 神位를 모셔놓고 法事를 행했던 것 같다. 1695년 관수가 ‘養玉院樣 御靈糒料의 명목으로 白米1俵를 동향사에 보냈다’는 기록이 보이기 때문이다. 종래 동향사의 기능에 대한 관심은 외교문서의 검토 및 작성이라는 부분에만 집중되어 왜관 내의 각종 祭禮, 의식의 수행이라는 기능은 거의 도외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래, 승려의 파견실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32) 『增正交隣志』卷4, 約条 所収 「館守倭又請申約条」(1683년) 말미에 조선정부가 두모포왜관 묘소참배를 허가하는 기사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許春秋社日及百種節日倭人省墓、因府使蘇斗山狀啓

一 旧館時倭人身死埋葬者甚多、其子孫之來留新館者、願以春秋社日及百種節日往省、事關情理許之

一 社日則各七日、百種則四日定式、自新館距旧館十里之路、人家連絡而倭人往來之際、任意闖入、民不勝苦、正宗九年乙巳、別差金健瑞責諭館守倭、一直大路外、俾不得橫走一步

33) 『館守每日記』元祿8年(1695)7월11일조.

34) 『館守每日記』元祿8年(1695)7월13일조.

35) 『館守每日記』元祿8年(1695)7월14일조.

기능에 관해서는 향후 한층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연중행사와 관련된 연회인 ‘名日宴’에 관해 살펴보겠다. 『春官志』에 의하면 ‘일본의 풍속에 1월1일, 3월3일, 5월5일, 6월15일, 7월7일, 7월15일, 8월1일, 9월9일, 10월 해일(亥日)을 명일(名日)로 삼고 있는 바, 이때 베풀어 주는 연회를 名日宴이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명일연은 조선에 도해하는 외교사절 즉 연례송사와 차왜에 대하여 조선정부가 치르는 정식 접대의례 중의 하나이다. 외교사절이 부산에 입항하여 出船하기까지 조선이 제공하는 접대에는 크게 다례(茶禮)·연향(宴享)·지공(支供) 등이 있는데 연향은 하선연·별연·노차연·명일연·상선연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은 사절의 외교적 역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절의 인원수, 체재기간 등 접대에 차등을 두었는데 명일연의 횟수도 사절에 따라 달랐다. 명일연은 연례송사 중 1특송사와 부특송사(副特送使)가 4회로 가장 많았고, 차왜 중에서는 통신사호행차왜(通信使護行差倭)와 재판이 4회로 여타의 차왜 3회보다 많았다.<sup>36)</sup>

이처럼 명일연은 정식 접대의례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견 연중행사라든가 세시와는 무관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유래를 살펴보면 일본인이 중시하는 세시일, 축일에 공식적인 연회를 베풀어 줌으로써 일본의 풍속을 접대의식에 도입하여 외교의례화한 것이 명일연이 아닐까 생각된다.

### Ⅲ. 왜관의 특별한 儀式들

왜관에는 연중행사와는 상관없이 이른바 ‘형식을 갖추어 행해지는 儀式’이 몇 가지 있었다. 그러한 의식의 첫 번째로 관수가 ‘벽서(壁書, 가베가키)’라는 것을 재판자들 앞에서 낭독하는 의식을 들 수 있다. 벽서란 대마번이 왜관 체류자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규정으로, 재판자들이 준수해야 할 일종의 관내규약이었다. 재판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란 곧 재판자에게 금지된 행위

36) 沈珉廷 「18세기 倭館에서의 倭使 접대음식 준비와 양상」(전계논문), p.96. 각 送使의 명일연 횟수에 관해서는 『增正交隣志』卷1, 年例送使를 참조.

들을 의미하는데, 이를테면 도박, 음주와 관련된 추태, 언쟁과 다툼, 조선인과의 사사로운 서신교환, 일본에 관한 정보유출, 조선인에 대한 日本製 무기판매 등 총 2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요컨대 벽서는 왜관에 체재하는 대마번 사람들이 준수해야 업무지침인 동시에 행동지침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왜관벽서는 1671년 3월19일, 제15대 관수 唐坊忠左衛門 때부터 시작되어 관수가 교체될 때에 통달되었다. 최초의 벽서는 19개조로 이루어졌다. 옛날 법령을 직접 벽에 쓰거나 판에 써서 벽에 게시했던 연유로 벽서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왜관의 벽서는 종이에 기록되었다. 대마번은 신임관수를 임명할 때 조선도해에 앞서 관수에게 벽서를 들려주고 규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도록 했다.<sup>37)</sup>

벽서를 낭독할 때 관수는 벽서낭독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치다이간(一代官), 요코메(横目) 등을 통해 모든 재판자에게 미리 알려서 특정 시각에 館守屋에 모이도록 했다.<sup>38)</sup> 벽서 낭독에는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僉官, 代官, 諸請負, 馬乗中, 船頭水夫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참석했다.

겐로쿠(元祿) 시대 즉 17세기 말에는 벽서만 낭독했으나 호레키(寶曆) 시대로 내려오자 관수는 벽서 이외에 朝鮮御支配가 보낸 문서, 交奸문서 등을 포함하여 총 세 종류의 문서를 낭독하게 되었다.<sup>39)</sup> 그것은 1711년 辛卯約條(交奸約條)가 체결된 것을 계기로 하여 교간에 관한 번청의 지시사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마번청은 교호(享保)연간부터 ‘壁書’ ‘隣交書付’와 더불어 ‘交奸の書付’라는 것을 신임관수에게 교부하였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교간약조의 성립과 때를 같이 하여 재판자를 상대로 한 ‘交奸嚴禁의 喚起’가 관수의 공식적인 임무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대마번이 교간약조의 준수를 의식하여 재판자의 교간을 사전에 방지, 통제하는 데에 번청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음을 의미할 것이다.<sup>40)</sup>

낭독하는 관수나 듣는 재판자 모두 의복을 갖추어 입고 참석한다<sup>41)</sup> 것으로 보

37) 앞의 책 『倭館—鎖国時代の日本人町』, p.135.

38) 『館守毎日記』 元祿8년 11월4일조.

39) 『館守毎日記』 元祿8년 11월5일조.

40) 윤유숙(2005) 「17세기 후반-18세기 초두 왜관통제와 한일교섭」 『한일관계사 연구논집6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경인문화사, pp.150-151.

41) 『館守毎日記』 宝曆7년 5월5일, 6일조. 侍中은 緞子, 肩衣를 입고 참석했다고 한다.



아, 벽서의 낭독이 왜관에서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행해지는 상당히 중요한 의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벽서 낭독이 일 년에 몇 번 행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겐로쿠 연간에는 대체로 연말에 한 번 있었고 호레키 연간에는 5월에 행해졌다.

둘째 왜관에서는 매달 초하루가 되면 거의 어김없이 ‘當日의 祝詞(슈시)’라고 하여 ‘兪官, 横目, 代官, 東館에 기거하는 役人 전원이 모여 대면하고 請負商人과 馬乘들은 寄附帳에 기재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런데 이처럼 매달 초가 되면 거의 전원이 집합해서 대면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館守每日記』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집합하던 장소도 알 수 없다. 어디까지나 추측에 지나지 않지만 오늘날의 ‘전체 인원확인’ 내지는 ‘전체 안부확인’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았을까.

세 번째로 번주나 번주 가족의 慶弔事로 인한 의식, 祭禮를 꼽을 수 있다. 1694년 11월15일, 에도에 체재 중이던 번주 요시즈구(義倫)가 서거했다는 소식이 飛船으로 왜관에 전해졌다. 요시즈구는 요시자네(義眞)의 아들로 1694년 9월 말에 사망했다. 그러자 왜관에서는 먼저 왜관 안으로 ‘魚鳥’를 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문에는 경비 무사를 세워서 이를 감시하게 했다. 또한 이 때 관내에서는 갖가지 금지사항이 재판자에게 전달되었다. 우선 서거 소식이 전해진 날로부터 50일 동안 ‘쯔키시로(月代)<sup>42)</sup>, 난무(亂舞), 토목공사(普請)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거래용 물품을 관내로 반입하는 것을 금하였다.<sup>43)</sup> 조선 측에도 왜관 수문 앞에서 열리는 朝市에 모여드는 조선인들에게 魚鳥의 지참을 금해달라고 통보했다.<sup>44)</sup>

이처럼 번주의 서거 후 일정기간 동안 난무, 토목공사, 魚鳥의 매매 등을 금지하는 관습은 ‘鳴物停止令(나리모노초지레이)’와 관련이 있다. 에도시대에는 쇼군과 같이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사망하면 ‘鳴物停止令’이라는 명이 발표되어

42) 月額. 남성의 이마 쪽 머리를 머리의 중앙에 걸쳐 반월형으로 깎는 것을 말한다. 원래는 冠의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을 깎았다고 한다. 오닌의 난(応仁의 亂) 후에는 무사가 氣의 역상(逆上)을 막기 위해 깎았다고도 하며 에도시대에는 서민들 사이에서도 행해져 성인(成人)의 표식이 되었다.

43) 『館守每日記』 元禄7년 11월15일조.

44) 『館守每日記』 元禄7년 11월16일조.

일정기간 정숙, 근신할 것이 강제되었다. 에도시대의 鳴物停止令에는 토목공사 금지(普請停止), 漁獵停止 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살생을 자제하고, 공사 소음, 遊藝 소리,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금지해서 정숙한 가운데 死者를 애도하도록 강요되었다. 鳴物停止 기간은 死者의 지위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달랐다. 鳴物停止令이 발포되는 경우는 막부 쪽에서는 쇼군과 그 일족, 로주(老中)가 사망했을 때이고 조정 쪽에서는 천황, 상황, 노인(女院)<sup>45)</sup> 등이 사망했을 때이다.<sup>46)</sup>

예를 들면 막부의 10대 쇼군 이에하루(家治)가 1786년 9월8일 사망하자 전국적인 服喪이 강제되었다. 그 일환으로 10일간의 漁獵禁止令이 발포되어 시중에 나도는 어류의 양이 현격하게 감소했고 魚采類 시장까지 금지시켰다. 막부의 입장은 시장이 서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면 소란스러워지고, 그것은 곧 鳴物停止令으로 상징되는 ‘정숙함을 유지하여 쇼군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sup>47)</sup>

왜관에서는 번주 요시즈구의 서거 소식이 도착한 이튿날인 16일부터 ‘이치시치니치(一七日, 히토나누카)’<sup>48)</sup>가 동향사에서 행해졌고 재판자 일동이 분향하였다. 또한 이 소식은 역관을 통해 동래부사와 부산첨사, 중앙의 조정에도 보고되었고, 역관이 이치시치니치인 22일에 상복 차림으로 동향사 佛事に 참가하여 조의를 표했다.<sup>49)</sup>

정월 5일까지가 추도기간이라는 이유를 들어 신년을 맞아 세신(歲神)을 맞이하기 위해 집의 문 앞에 세워두는 송나무 장식도 정월 6일부터 장식하도록 했다.<sup>50)</sup> 뿐만 아니라 정월 초하루에 행해지던 ‘元日祝事’도 7일로 미루어졌다.<sup>51)</sup>

45) 천황의 어머니, 三后, 内親王에게 조정이 부여한 존칭.

46) 에도시대 중기까지의 鳴物停止令 기간을 살펴보면, 일수의 변동은 있지만 대체로 쇼군, 오고쇼(大御所)는 49-77일, 쇼군의 어머니가 14일, 쇼군의 아내가 5-10일, 쇼군의 자식이 3-7일, 고산케가 3-7일, 로주가 3일이다. 조정관계에서는 천황·상황이 3-7일이다. 鳴物停止令의 일수만으로 따지면 천황과 상황의 사망이 쇼군, 오고쇼에 비해 상당히 가볍게 취급된 셈이다. 메이지 시대 이후에는 ‘鳴物’이 ‘歌舞音曲’으로 해석되어 演芸, 遊芸의 三味線, 太鼓 등의 ‘音’으로 상징되었다. 藤田覚(1994) 『幕末の天皇』講談社, pp.30-31.

47) 앞의 책 『幕末の天皇』, pp.89-90.

48) 사후(死後) 칠 일째 되는 날. 또는 칠 일간.

49) 『館守毎日記』元禄7년 11월17일조, 22일조.

50) 『館守毎日記』元禄7년 12월27일조. 이 때 송나무 장식은 요리시로(依代)의 의미를 지닌다.

이듬해 3월 초순 무렵 幾度伊右衛門이 번주의 서거를 알리는 使者인 ‘島主身死 告訃差倭(弔禮差倭:小差倭)’로 왜관에 도해하였다.<sup>52)</sup> 1696년(元祿9) 3월27일, 요시즈구의 一回忌를 맞아 대마도에서 法事가 거행되었고 동향사에서도 추모 의식이 행해졌다. 재판자 전원이 동향사를 방문하여 분향하였고 관수 內野權兵衛는 一代官에게 ‘御靈糶料’ 명목으로 白米1俵를 동향사에 보내도록 했다.<sup>53)</sup>

한편 요시즈구의 뒤를 이어 번주에 취임한 것은 소오 요시미치(宗義方, 재임 기간 1694-1718)이다. 그러나 요시미치의 나이가 아홉 살로 연소한 탓에 요시미치의 親父이자 앞서 번주를 역임한 바 있는 요시자네(義眞)가 섭정을 맡게 되었다. 이에 요시미치가 취임한 이듬해인 1695년 制札6枚가 왜관에 전달되었다. 제찰은 ‘公儀의 制札’ 3매, ‘藩主의 制札’ 3매로, 번주의 교체 를 계기로 하여 막부와 번주 소오씨의 지시사항이 왜관에 전달되었고, 관수는 왜관의 制札場에 있던 기존의 제찰과 이것을 교체하여 세워놓았다고 전해진다.<sup>54)</sup>

넷째 대마도인의 처형의식을 들 수 있다. 왜관이 소재하는 부산지역에서 볼 수 있었던 진풍경 중의 하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마번 사람이 왜관으로 보내져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었다. 대마번은 17세기에 후반부터 밀무역과 같이 조선인과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한 대마도인을 왜관 근처에서 공식적으로 처형하는 일이 간혹 있었다.<sup>55)</sup> 물론 이것은 대마번청의 결정에 의거하여 거행되었고 대마번은 형을 집행하기 전 조선정부에 정식으로 통보하기도 했다. 刑 집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왜관 근처의 ‘二嶽’이라는 곳으로 그 근처를 ‘營纏峠(영전고개)’라고도 한다.<sup>56)</sup>

요리시로란 神靈을 맞아들여 그것이 빙의되는 것을 말한다. 수목, 암석, 인형과 같은 유체물(有体物)을 요리시로로 삼아 이를 신령의 대체물이라 여겼다.

51) 『館守每日記』元祿8년 正月元日조.

52) 『邊例集要』권1, 別差倭, 乙亥年(1695) 3月条. 이 때 幾度伊右衛門은 예조참의·동래부사·부산첨사에게 보내는 서계와 답서, 그리고 요시즈구가 죽음에 임해서 남긴 서계(遺書)와 별폭을 지참하고 왔다. 『同文彙考』附編 권6, 告訃에 차와 幾度伊右衛門가 지참하고 온 서계와 유서가 게재되어 있다.

53) 『館守每日記』元祿 9년 3월27日조. 요시즈구는 1694년 9월에 사망했으므로 1695년 9월이 사후 일 년에 해당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館守每日記』에는 1696년 3월에 一回忌 의식이 행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54) 『館守每日記』元祿8년 9월朔日조.

55) 尹裕淑(1997) 「近世癸亥約条の運用実態について—潜商・關出を中心に—」 『朝鮮學報』164号.

56) 宗家記録에는 ‘二嶽’, ‘二ノ嶽’, ‘二ツ嶽’로 기재되어 있다. 營纏이란 왜관에서 소비하는 柴炭

조선정부는 밀무역과 같은 사건의 처리에 관해 대마번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일본인을 조선에서 처형하는 처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 刑 집행이 결정되면 대개는 조선의 역관 등이 二嶽의 형장에까지 나아가 양국 관리의 입회하에 형이 집행되는 것이 상례였다. 亡者의 시신은 소금에 채워져 대마도로 이송되곤 했다. 대마번 입장에서는 조선인들이 衆人環視하는 가운데 이른바 ‘본보기적인 처형’을 감행함으로써 왜관에 체재하는 대마번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마번 사람을 일부러 조선까지 보내어 처형하는 사례가 비단 밀무역이나 상해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적용의 범위가 좀 더 넓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1694년(元祿7) 대마도인 3명(八助・平兵衛・長吉)이 대마도에서 도망쳐 나와 조선에 와서는 마치 나가토(長門, 현재의 야마구치현) 지역에서 표류해 온 ‘漂民’인양 거짓행세를 했다. 조선정부는 그들을 표류민으로 파악하여 표류민에게 합당한 보호와 접대를 제공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조선의 선박을 탈취하여 도망치다가 다시 대마도에 표착하고 말았다. 그러자 대마번은 이 일을 조선 측에 통보하고 같은 해 8월 二嶽에서 당사자들을 사형에 처했다.<sup>57)</sup>

대마도에서 도망쳐 나온 것은 일견 대마번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대마번은 이 사건의 주인공들이 스스로를 일본인 표류자로 위장하여 조선정부의 보호조치를 받았던 점, 게다가 조선의 선박을 훔쳐 달아나는 바람에 ‘조선의 관리를 곤란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강하게 의식한 것 같다.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류민의 보호에 관한 양국통교 상의 관례’를 악용한 행태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었을까. 결국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대마번이 대마번 사람을 조선에서 처형한 경우는 다양한 케이스에 걸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을 보관하는 곳으로, 柴炭庫・炭小屋・炭幕 등으로 불리어 왜관의 북쪽에 있는 當纏峠의 맞은편 碁石浜에 위치하고 있었다. 조선은 왜관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체재기간 중에 필요한 연료용으로 시탄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왜관에의 시탄지급은 부산진(釜山鎭)의 소관이었고, 시탄은 부산진이 관리하는 보관소(炭幕)에 집적되었다가 매달 일정량이 왜관으로 운반되었다.

57) 『館守每日記』元祿7년 8월21일조.

그리고 이 사례에서 한 가지 더 주목되는 점은 처형이 감행된 ‘시기’이다. 필자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에 의하면 1698년 밀무역 사건에 대한 처벌로 대마번의 白水與兵衛라는 인물이 二嶽에서 처형된 것이 가장 이른 사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전술한 위장 표류민 사건은 1694년에 처리되었으므로 조선에서의 처형은 더 이른 시기부터 시작된 셈이다. 이 같은 조치가 과연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폭넓은 사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宗家記錄에서 종종 보이는 ‘조선인의 왜관구경’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본고는 이것을 의식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오히려 왜관이 조선시대에 유일한 ‘외국인 체재구역’이었음을 실감케 하는 장면이며, 조선 측의 문헌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왜관의 일면이라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館守每日記』에 따르면 이따금씩 조선인들이 역관과 함께 입관하여 관내를 구경하는 일이 있었다. 그럴 때면 통상 역관들은 관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선인과 왜관을 둘러본 뒤 돌아가곤 했다.<sup>58)</sup> 왜관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 이외에 일본인과 일상적인 접촉이 차단되어 있던 당시 대다수의 조선인에게 왜관은 필시 ‘倭人の 공간’으로 인지되었을 것이고, 그런 왜관의 풍경에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역관에게 안내를 부탁했으리라 짐작된다. 이렇게 보면 왜관 체재자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조선인의 ‘구경의 대상’이 되곤 했던 것도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일부였던 셈이다.

#### IV. 맺음말

본고는 근세 왜관에서 행해지던 연중행사와 각종 의식을 검토하여 재관(在館) 일본인들의 생활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중행사의 실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다. 첫째 연중행사를 계기로 해서 조일 간에는 사적인 증답품의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사절의 명목으로 혹은 역원의 임무를 띠고 왜관에 도해한 대마번 사람들과 그들을 접

58) 『館守每日記』 宝曆7년 5월2일조, 宝曆7년 9월21일조.

대하는 조선의 관리들 사이에는 세시명절을 축하하는 뜻에서 사적인 선물이 교환되었다. 선물 수수행위는 조선의 통교정식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하나의 관례로 정착되었다고 추정된다. 이는 동시에 공식적인 통교행위와는 별개의 형태로 조일 양국의 생산품이 교환되어 사용, 유통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둘째 에도시대 일본의 주요 축일인 오절구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왜관에서 연중행사가 가장 풍부하게 행해진 것은 7월이었다. 왜관에서는 대개 盂蘭盆과 관련하여 7월 초순에 동향사에서 세가키(施餓鬼)를 거행하여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곤 했다. 세가키는 시기에 따라서는 관수를 비롯한 왜관의 관리들이 행사의 외관에 신경을 쓸 정도로 중시되던 법회였다. 또한 이 시기에 재관자들의 두모포왜관 묘소 참배도 매년 행해졌다.

왜관에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의식으로 네 가지를 검토하였다. 왜관의 관수가 재관자들이 준수해야 할 일종의 관내규약인 壁書를 재관자들 앞에서 낭독하는 의식이 그 중 하나이다. 17세기 말에는 벽서만 낭독했으나 寶曆시대로 내려오면 壁書, 朝鮮御支配가 보낸 문서, 交奸문서 등 총 세 종류의 문서를 낭독했던 것이 확인된다. 둘째 왜관에서는 매달 초하루가 되면 재관자 전원이 모여 ‘當日의 祝詞’를 교환하였는데 추측컨대 ‘전체 인원확인’ 내지는 ‘전체 안부확인’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셋째 왜관에서는 번주나 번주 가족의 慶弔事로 인한 의식, 祭禮 등이 동향사에서 불교의식으로 거행되곤 했다. 특히 번주가 사거한 경우 재관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정숙, 근신할 것이 요구되었고 조선의 역관 등도 입관하여 조의를 표했다. 넷째 대마번은 밀무역, 위장 표류민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대마번 사람을 왜관으로 송치하여 왜관 근처(二嶽)에서 처형하는, 형(刑) 집행관습을 갖고 있었다.

### 참고문헌

- 임동권(1985) 『日本対馬・壱岐島 総合学術調査報告書』 서울신문사.  
 강남주(1996) 「한국 남해 도서와 일본 대마도의 민속문화와 문학에 관한 연구」 『비교민속학』 p.13.  
 김성진(1998) 『釜山倭館과 韓日間文化交流』 『한국문학논총』 22輯, 한국문학회.

- \_\_\_\_\_ (1998) 「朝鮮後期 金海의 生活相에 미친 日本文物」 『인문논총』 p.52,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강진문(2003) 「일본의 세시풍속-연중행사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p.2.
- 김미영(2008) 「일본 세시풍속 연구의 동향과 전망」 『비교민속학』 37집.
- 양홍숙(2009) 『조선 후기 東萊지역과 지역민 동향-倭館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沈珉廷(2008) 「18세기 倭館에서의 倭使 접대음식 준비와 양상」 『역사와 경계』, p.66.
- 윤유숙(2005) 「17세기 후반~18세기 초두 왜관통제와 한일교섭」 『한일관계사 연구논집 6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pp.150-151.
- \_\_\_\_\_ (2010) 「근세 朝日통교와 非定例 差倭의 조선도해」 『사충』, p.70.
- 田代和生(1996) 「近世倭館の食生活」 『季刊ヴェスタ』, p.26.
- \_\_\_\_\_ (2002) 『倭館-鎖国時代の日本人町』 文芸春秋.
- 尹裕淑(1997) 「近世癸亥約條의 運用實態について-潛商·關出を中心に」 『朝鮮學報』, 164号.
- 金東哲(2001) 「十七~十九世紀의 釜山倭館周邊地域民의 生活相」 『年報都市史研究 9 東アジア의 傳統都市』 山川出版社.
- 対馬教育會編(1973) 『増訂対馬島誌』 名著出版.
- 藤田覚(1994) 『幕末の天皇』 講談社.
- 福田アジオ 外編(1999) 『日本民俗大辞典』 吉川弘文館.
- 対馬觀光物産協會(2002) 『つしま百科』 昭和堂.
- 小野武雄(2002) 『江戸の歳事風俗誌』 株式会社講談社.
- 竹内誠編(2003) 『徳川幕府事典』 東京堂出版.
- 『増正交隣志』
- 『邊例集要』
- 宗家記録 『館守毎日記』 (일본국립국회도서관소장)
- 宗家記録 『給仮使記録』 (국사편찬위원회소장, 기록류 No.3947).
- 宗家記録 『報情參判使往復書狀』 (국사편찬위원회소장, 기록류 No.3072).

- ❖ 투고일 : 2010. 12. 31.
- ❖ 심사일 : 2011. 01. 31.
- ❖ 심사완료일 : 2011. 02. 10.